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현황 및 분류표 적용 분석*

An Analysis of Korean Children's Libraries and Their Classification Scheme

문 지 현(Ji-Hyun Moon)**

김 정 현(Jeong-Hyen Kim)***

< 목 차 >

I. 서론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적용 분석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어린이도서관 분류 및 분류표에 대한 의견
3. 선행연구	4.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적용상의 불편과 어려움에 대한 추가 논의
II.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유형 및 장서 현황	IV. 결론
1.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유형	
2.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장서 현황	
III.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적용 분석	

초 록

이 연구는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적용 현황 및 적용상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96개관의 어린이도서관을 조사해본 결과, KDC 적용 도서관이 53개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관분류표 개발 도서관이 22개관,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적용 도서관이 13개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에서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류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다. 분류표 적용상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만화와 그림책과 같은 어린이도서관의 여러 형태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 특정 주제에 장서가 편중되는 점, 장서 성격에 맞는 주제 항목이 부족한 점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향후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키워드: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한국십진분류법

ABSTRACT

The paper analyzes local children's libraries' status of application of classification scheme and problems and difficulties in its application in order to be used as basic material for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scheme for exclusive use of children's libraries. Through survey, the paper researched 96 local children's librarie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KDC-applied libraries numbered 53 and were the highest, libraries which developed their own classification scheme numbered 22, and libraries which applied classification scheme for children's library numbered 13. Further, many asserted that there needs to be a development of standard classification scheme to be used in children's library. On problems and difficulties in applying classification scheme, notes such as difficulty of accommodating various forms of children's books(such as comic books and picture books), placing too much emphasis on collection of books on certain topic, and lack of topic categories appropriate for characteristics of collected books were voiced, and by holding additional discussion on these, the paper raised the usefulness of the dissertation to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developing classification scheme for exclusive use of children's library in the future.

Keywords: Children's Library, Children's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 KDC

* 이 논문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주관 2008년 하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rlacodnjs@hanmail.net)(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gim@chonnam.ac.kr)(공동저자)

• 접수일: 2008년 5월 20일 • 최종심사일: 2008년 5월 30일 • 최종심사일: 2008년 6월 21일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 가운데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어린 시절부터 독서습관과 도서관 이용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공간으로, 단순히 책만 읽는 독서의 공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 및 학습공간이라 할 수 있다. Shera도 “오늘의 어린이는 미래의 유권자이다. 만약 어린이가 어린 시절에 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도서관을 지원하고, 도서관에 투자하겠는가? 어릴 때의 기억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미래의 유권자인 어린이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므로 미래 도서관의 발전상은 그들이 경험한 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에서 형성된다”고 하여,¹⁾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개인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영역의 어린이도서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의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장서구성이나 운영 프로그램 등 어린이도서관의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류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독립적인 분류체계가 없는 실정이며, 그로 인해 도서관 실무자들은 물론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 실제 어린이도서관 현장에서는 국내 유일의 표준분류표라 할 수 있는 KDC가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KDC가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과 같이 대규모 도서관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특수한 성격의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어린이도서관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장차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분류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적용 현황 및 적용상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즉, 실제 유형별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적용 특성 및 현장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여러 분류표 적용상의 장·단점 등을 조사하여 분류표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 J. H. Shera,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Chicago : Libraries Unlimited, 1976), p.121.

2. 연구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적용 실태 및 적용상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도서관법에서 다루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법적 개념과 시설기준 확인을 통하여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유형을 규정해보고, 도서관 통계자료 및 어린이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서 제시된 목록을 참고로 하여 현재 국내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장서량을 공립과 사립으로 비교 조사해보고, 주제별 장서량도 분석하였다.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주제와 특성이 분류표 선정에 중요한 기준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린이도서관의 장서 규모 및 주제별 장서량 분석은 어린이도서관 분류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국내의 어린이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를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분류체계와 방법을 조사하였다. 분류표의 채용 여부와 어린이도서관의 유형에 따른 분류체계 적용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KDC 적용도서관, 자관분류표 개발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적용 도서관으로 대별하여 분류표 적용상의 문제점과 유용성 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란 느티나무 도서관 분류표나 파랑새 도서관 분류표와 같이 특정 어린이도서관이나 단체에서 개발되었으나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여타 다른 어린이도서관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분류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어린이도서관의 장서량 분석과 세 번째의 어린이도서관의 분류체계 적용 분석은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대상 도서관은 앞서 수집된 어린이도서관의 주소록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전화하여 152개관을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96부로 조사대상 어린이 도서관중 63.2%에 해당된다.

넷째,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어린이도서관의 분류문제에 대한 추가논의를 통해 향후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을 높였다.

3. 선행연구

어린이도서관 및 어린이도서의 분류에 관한 연구에는 어린이도서관적인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어린이 자료 분류에서도 이루어졌다.

김정현은 초등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제로 소장된 문헌의 KDC 유별 현황을 분석하여 문헌의 유별 분포도를 분석하고, KDC 사회과학류(300)와 순수과학류(400)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분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9권 제2호)

류항목과 초등학생관련 문헌에서 추출한 용어에 대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이해도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분류표 수정전개의 원칙과 방법을 마련하여 분류항목의 수정전개방안을 제시하였다.²⁾ 김정현과 문지현은 국내 어린이도서관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 느티나무도서관 분류표와 파랑새도서관 분류표의 특성을 분석한 후,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³⁾ 민경록과 성승경은 KDC가 어린이자료와 아동문학 장르에 대한 분류항목이 제대로 전개되어 있지 않아 일관되고 통일된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고,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분류항목의 일부 수정 및 보완방안을 제안하였다.⁴⁾ 김종성은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에 비추어 KDC의 한계를 짚어보고 어린이도서관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몇몇 학술적인 연구와 도서관 현장의 노력을 분석한 후, 실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분류체계를 창안하기보다는 기존의 분류표를 변용하거나 기존 분류체계하에서 별치기호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⁵⁾ 김천숙은 공공도서관과 사립어린이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그림책의 분류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공도서관의 그림책 분류번호 분석을 통해 KDC에 기반한 그림책 분류 현황을 조사한 후, 그림책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도록 KDC에 바탕을 둔 그림책 분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⁶⁾

한편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이용자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자료를 몇 개의 컬렉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컬렉션들은 대체로 저자명이나 표제명의 일부글자 또는 전체글자를 부여하여 배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양한 주제분야를 다루는 논픽션 자료들은 다시 특정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분류와 배가가 이루어진다. 이 때 사용되는 분류체계로는 LCC, DDC 완전판, DDC 간략판 등이 있으나, 어린이장서에는 간략판이 보다 더 적합하다.⁷⁾

일본에서 어린이 책 분류는 대체적으로 NDC를 채용하고 있지만, 도서관의 위상이나 규모 등에 따라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에서는 NDC에 따르지만 대부분 두 자릿수로 분류하고 일부만을 다시 전개하여 세 자릿수로 분류하든가, 혹은 대부분을 세 자릿수로 하고 일부를 네 자릿수로 분류하는 등 도서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⁸⁾ 또한 NDC 해설 부분에서는 그림책과 만화자료의 경우 분류번호 대신 C(comic)와 E(그림책의 일본 이름 '에흥'에

2) 김정현, "학교도서관을 위한 KDC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 초등학생관련 문헌의 어휘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 12), pp.171-191.

3) 김정현, 문지현, "국내 어린이도서관이 분류표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6), pp.315-335.

4) 민경록, 성승경, "어린이 자료 분류를 위한 KDC의 수정 및 보완 : 문학류(800)를 중심으로,"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제43회(2005), pp.62-89.

5) 김종성, "어린이도서관 '실제적 필요'에 맞는 분류를 고민한다," 어린이와 도서관, Vol.1(2005), pp.142-161.

6) 김천숙, 공공도서관의 그림책 분류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7) Michael Sullivan, *Fundamentals of Children's Service*(Chicago : ALA, 2005), pp.60-61.

8) 堀川照代 편저, 고향옥 옮김, 이연옥 감수, 아동서비스론(과주 : 알마, 2007), p.92.

서 비롯됨)를 부가하도록 하고 있다.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의 분류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수 있지만 어린이도서관의 분류문제를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전국의 어린이도서관을 대상으로 분류표의 적용 현황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I.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유형 및 장서 현황

1.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유형

어린이도서관은 “전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봉사를 위해 설립된 도서관”으로,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는 오랜 논의를 거쳐 어린이도서관을 공공어린이도서관(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포함), 민간어린이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어린이도서관의 모습과 특성에 기반한 유형구분이라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학교도서관(초등학교)의 경우 영·유아 등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대상학교 학생들에게 이용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의 경우 부속적인 성격이 강하며 어린이 관련 타실과의 연계성 고려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도서관의 범주에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이나 초등학교도서관을 포함시키지 않기도 한다.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의 포괄적인 유형 구분과는 달리 어린이도서관을 전문도서관의 범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었던 시기에 전문도서관에 대한 정의, 예컨대 “그 설립기관 및 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에 근거하여 구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어린이도서관의 유형과 범주구분상의 시각차는 현행 도서관 관계법 적용을 통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기존의 특수도서관의 범주에 속했던 점자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과 문고 및 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켜, 공공도서관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어린이도서관의 성격 및 여타 도서관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만으로는 어린이도서관의 유형을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전문도서관으로 포함시키거나, 어린이도서관의 유형에 학교도서관을 포함시키는 일부 관행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및 문고와 어린이도서관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9)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十進分類法(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95), p.355.

10) 어유선, “어린이도서관, 멀고도 가까운 길,” 어린이와 도서관, Vol.1(2005), p.46에서 재인용.

도서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 즉, 설립 및 운영주체와 시설기준에 따라 어린이도서관의 유형을 규정해보고자 한다.

먼저 어린이도서관은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어린이도서관과 사립어린이도서관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국립어린이도서관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지만 교회, 대학교, 복지관, 사회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도서관까지 포괄한다. 반면 사립어린이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단체에는 교회와 같은 종교재단, 각종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시설기준에 따른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의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근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공공 및 사립도서관의 최소시설기준인 80평(264㎡) 이상을 충족하면 어린이도서관으로, 10평(33㎡)이상의 열람실 면적이면 어린이문고로 분류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어린이도서관들은 도서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문고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어린이도서관의 유형을 규정해보면, 어린이도서관은 국립어린이도서관/공립어린이문고, 사립어린이도서관/사립어린이문고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적의 도서관과 인표어린이도서관은 각각 공립과 사립에서 별도로 구별하였다. 그것은 기적의 도서관 경우 민관협력으로 설립되었고 현재도 민간 또는 단체 위탁이 많은 점을 고려하였다. 인표도서관도 특정 단체에 의해 일괄적으로 건립된 점과 인표도서관본부가 수서와 분류 등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총괄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하였다. 특별한 유형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내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도서관 및 아동독서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2006년에 설립된 국가대표 어린이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표 1>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유형

운영주체 \ 규모	공공도서관 규모	분관(문고) 규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공립어린이도서관 - 기적의 도서관	- 공립어린이문고
개인 및 단체	- 사립어린이도서관	- 사립어린이문고 - 인표 어린이도서관

<표 2>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 유형에 따른 어린이도서관의 지역별 현황이다. <표 2>의 현황은 2007년 7월 기준으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출간된 한국도서관연감의 도서관 통계 및 '인표어린이도서관',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감리교어린이도서관협회', '어린이도서관

구회' 등의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목록과 웹상에서 확인된 기타 어린이도서관의 목록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전화로 직접 확인을 통해 조사한 내용이다.

〈표 2〉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지역별 현황(2007년 7월 기준)

관종 지역	공립(문고포함)	기 적	인 표	사립(문고포함)	합 계
서울	8		4	37	49(24.4)
경기	19	1	1	74	95(47.2)
강원			1	8	9(4.5)
충청	1	3	1	7	12(6.0)
전라	1	1	2	7	11(5.5)
경상	2	2	3	15	22(10.9)
제주		2		1	3(1.5)
합계(비율)	31(15.4%)	9(4.5%)	12(6.0%)	149(74.1%)	201(100)

한편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립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없어지거나 매년 생기는 곳도 많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지금까지 어린이도서관의 현황과 관련된 주요 연구들¹¹⁾에서 파악한 도서관의 수가 2-3년 단위로 약 40-60개의 증가량을 보인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어린이도서관의 수는 〈표 2〉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장서 현황

앞서 파악된 국내 어린이도서관 중 설문지에 응답한 96개 도서관의 장서량을 공립과 사립도서관으로 대별하여 분석해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단행본의 경우 기적의 도서관을 포함한 공립어린이도서관은 70% 가까이에 이르는 23개관이 2만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3만권 이상의 장서량을 소장한 도서관도 10개관이었다. 정기간행물도 20종 이상을 구독하고 있는 도서관이 23관(74.2%)으로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많은 양의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 슬라이드 등의 다양한 비도서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립어린이도서관의 단행본 규모는 5천권 이상-1만권 미만 29관(45.3%), 5천권 미만 23관(38.3%), 1만권 이상-1만5천권 미만 6관(10.0%) 순으로 나타나, 사립어린이도서관의 대부분이 1만권 이하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기간행물은 5종 미만이 17관(37.8), 10종미만이 15관

11) 2002년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한 수는 60여개로 파악. 전영순, "어린이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어린이도서관의 법적 지위 확보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서울 : 천영세 의원실, 2005), p.11에서는 100여개로 추정. 김정현, 문지현, 전계논문, p.322에서는 163개로 추정.

(33.3%)로, 70%이상의 사립어린이도서관이 10종미만의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고 있었으며, 구비하고 있는 비도서자료는 없거나 100개 미만인 도서관이 61.5%(24관)으로 나타나 어린이 장서의 중요한 요소인 비도서자료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장서규모

자 료	장 서	국립(기적 포함)		사립(인표 포함)	
		응답자수	비 율	응답자수	비 율
단행본	5000원미만	1	3.0	23	38.3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2	6.1	29	48.3
	10,000원 이상 - 15,000원 미만	4	12.1	6	10.0
	15,000원 이상 - 20,000원 미만	3	9.1	1	1.7
	20,000원 이상	13	39.4	1	1.7
	30,000원 이상	10	30.3	0	0
	계	33	100	60	100
정기 간행물	없음	0	0	2	4.5
	1종 이상 - 5종 미만	2	6.45	17	37.8
	5종 이상 - 10종 미만	3	9.7	15	33.3
	10종 이상 - 15종 미만	2	6.45	5	11.1
	15종 이상 - 20종 미만	1	3.2	1	2.2
	20종 이상	23	74.2	5	11.1
	계	31	100	45	100
비도서 자료	없음	1	3.3	8	20.5
	1 - 100 미만	4	13.3	16	41.0
	100 이상 - 500 미만	4	13.3	12	30.8
	500 이상 - 1,000 미만	5	16.7	1	2.6
	1,000 이상 - 2,000 미만	11	36.7	2	5.1
	2,000 이상 - 5,000 미만	5	16.7	0	0
	계	30	100	39	100

특히 어린이도서관에서의 장서는 전체 어린이도서관의 면적과 시설 등의 규모와 관련성이 높아 서 대체로 공간이 여유롭지 못한 사립어린이도서관은 장서가 많아지면 책의 진열이나 동선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도서관 공간이 복잡해지므로 장서 규모를 5천권 정도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있었다.

어린이도서관의 장서를 주제에 따라 나누면 〈표 4〉와 같이 문학부문의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여기에는 어린이도서의 대표적인 종류인 그림책이 문학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며, 편중현상은 사립어린이도서관이 더 심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문학류 다음으로 장서량이 많은 주제는 공립은 사회과학, 순수과학, 역사 순이며, 사립도서관은 사회과학, 역사, 순수과학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어린이도서관의 주제별 장서수와 비율

주제분야	공립(기적 포함)		사립(인포 포함)	
	평균(22관)	비율	평균(20관)	비율
총류	2,331	5.3	140	2.1
철학	1,090	2.5	93	1.4
종교	761	1.7	95	1.4
사회과학	7,563	17.4	745	11.1
순수과학	4,898	11.3	456	6.8
기술과학	1,384	3.2	181	2.7
예술	1,546	3.6	194	2.9
어학	1,612	3.7	108	1.6
문학	18,505	42.5	4,137	61.7
역사	3,809	8.8	558	8.3
계	43,499	100	6,708	100

공립어린이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KDC를 사용하여 도서관 자료를 분류하고 있고 도서관 목록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별 장서량에 대한 응답율이 높았다. 하지만 사립어린이도서관은 KDC 이외에도 자관 분류표나 다른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도서관들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주제별 장서에 대한 통계수치가 없어서인지 주제별 장서와 관련된 항목의 응답률이 저조하였다. 따라서 사립어린이도서관 17개관과 인포어린이도서관 3개관만을 바탕으로 결과를 산출하였다. 하지만 문학류/비문학류로 장서구성을 기재한 도서관까지 포함하면 36관으로, 주제별 장서수에 응답한 전체 사립어린이도서관의 문학류와 비문학류의 비율은 66%/34%로 〈표 4〉의 비율보다 약간 높다.

Ⅲ.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적용 분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자격증 종류 등을 파악하였는데, 〈표 5〉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 특성에서는 남성 15명(15.6%), 여성이 81명(84.4%)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30-39세 38명(41.7%), 40-49세 30명(33.0%), 20-29세 17명(18.7%), 50-59세 4명(4.4%), 60세 이상 2명(2.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30세-49세까지의 연령이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50세 이상인 6명은 모두 사립어린이도서관에 속한

응답자들로서 연령에 제약받지 않고 관심과 열의만 있다면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립어린이도서관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응답자수(명)	비율(%)
성 별	남	15	15.6
	여	81	84.4
	계	96	100.0
연 령	20-29세	17	18.7
	30-39세	38	41.7
	40-49세	30	33.0
	50-59세	4	4.4
	60-69세	2	2.2
	계	91	100.0

응답자가 소지한 자격증은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보았는데, 〈표 6〉과 같다.

먼저 기적의 도서관을 포함한 공립어린이도서관은 정사서 22명(64.7%)과 준사서 6명(17.6%)에 복수응답한 사서교사 및 사서 실기교사의 비율(11.8%)까지 포함하면, 90% 이상이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립어린이도서관은 사서관련 자격증 미소지가 40명(69%)으로, 기타로 응답된 9명(15.5%)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84% 이상이 사서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사서와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응답자는 모두 13.8%으로 공립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정사서와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모두에 복수응답한 수는 공립 4명과 사립 1명이다. 대부분의 인표어린이도서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담당자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기타 부분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평생교육사, 독서지도사, 보육교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어린이도서관 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자격증 종류

어린이도서관 유형	자격증 종류	응답자수(명)	비율(%)
공 립 (기적의 도서관 포함)	정사서	22	64.7
	준사서	6	17.6
	사서교사 및 사서실기교사	4	11.8
	사서관련 자격증 미소지	2	5.9
	기타	0	0.0
	계	34(복수응답)	100.0

사립 (인포어린이도서관 포함)	정사서	5	8.6
	준사서	3	5.2
	사서교사 및 사서실기교사	1	1.7
	사서관련 자격증 미소지	40	69.0
	기타	9	15.5
	계	58(복수응답)	100.0

2.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적용 분석

국내의 어린이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를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분류체계와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폐쇄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을 병행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먼저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사용유무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 도서관의 91.7%에 해당되는 88개관이 자료정리를 위해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분류표를 사용하지 않은 도서관 8개관은 모두 사립어린이도서관으로, 대부분 장서규모가 적고 목록데이터의 전산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도서관이다. 이들 중 연령과 도서형태 등을 고려하여 배가를 하는 도서관도 일부 있었지만 분류원칙이나 서가배열원칙 없이 무작위로 배가하는 도서관도 확인되었다. 한편 설문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전산화를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4곳의 도서관과 체계적인 분류표 사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다른 한 곳도 분류표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은 조사대상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적용 현황으로, KDC 적용 도서관이 53개관(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관분류표 개발 도서관이 22개관(25%),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를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13개관(14.8%)으로 조사되었다.

〈표 7〉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적용 현황

분류표	유형	공립	기적	인표	사립	계(비율)
KDC 적용		25	3	6	19	53(60.2)
자관분류표		1	2	0	19	22(25.0)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0	2	0	11	13(14.8)
계		26	7	6	49	88(100)

어린이도서관의 유형에 따른 분류표 사용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공립어린이도서관의 KDC 적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DC가 대다수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는 물론,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도 사용되는 국내 유일의 명실상부한 표준분류표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게다가 KDC를 적용하여 자료를 정리하면 분담목록을 통해 분류작업

에 소요되는 시간을 경감할 수도 있으며, 아동도서 종합목록구축 및 활용도 보다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인포어린이도서관도 모든 도서관이 KDC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류, 정리하고 있었다. 이것은 각 지역의 분관 도서관에 도서관 설비 및 신간도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본부 도서관이 KDC로 자료를 분류하여 내려 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의 모든 인포어린이도서관이 KDC로 도서를 분류,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서가배열은 획일적이지 않아서 문학작품에 주제별 색레이블을 표시하거나, 언어나 문학의 경우 출판사별 배열을 하는 등 개별 도서관 담당자들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기적의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는 매우 다양한데 조사대상에 포함된 7개관과 홈페이지 및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로 확인된 2개관의 분류표 사용현황은 <표 8>과 같다.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KDC 적용 도서관, 파랑새 분류표 적용 도서관, 자관 분류표 개발 도서관이 각각 3개관으로, 다양한 분류표 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기적의 도서관이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이기 때문에 공립적인 성격만 갖는 기타 어린이도서관과는 달리 KDC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탈피하여 어린이도서와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표를 선택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표 8> 기적의 도서관의 분류표 사용현황(2007. 7. 31 기준)

도서관명	위치	분류표	개관일
순천기적의 도서관	전라남도 순천시	파랑새 분류표	2003. 11. 10
제천기적의 도서관	충청북도 제천시	자관	2003. 12. 15
진해기적의 도서관	경상남도 진해시	파랑새 분류표	2004. 2. 2
서귀포기적의 도서관	제주도 서귀포시	자관	2004. 5. 5
제주기적의 도서관	제주도 제주시	파랑새 분류표	2004. 5. 5
청주기적의 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KDC	2004. 7. 15
울산북구기적의 도서관	울산시 북구	자관	2004. 7. 28
금산기적의 도서관	충청남도 금산군	KDC	2005. 5. 5
부평기적의 도서관	인천시 부평구	KDC	2006. 3. 10

사립어린이도서관도 기적의 도서관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KDC 적용도서관과 자관분류표 개발 도서관이 각각 19개관(38.8%)으로 그 수가 같고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를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11개관(22.4%)으로 나타났다.

분류표 변경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조사대상 어린이도서관의 5개관(5.2%)이 도서관 설립 이후 분류표를 바꾼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파랑새 분류표에서 KDC로 전환한 도서관이 3개관이고 파랑새 분류표 및 KDC를 사용하다가 자관분류표를 개발한 도서관이 각각 1

개관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과량새 분류표를 사용하다가 KDC나 자관분류표로 변경한 사례가 높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분류표 채택이유 및 적용하고 있는 분류표의 유형에 따른 나머지 질문 항목들에 대한 분석은 설문지의 구성 방식대로 KDC 적용 도서관, 자관분류표 개발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적용 도서관 등으로 대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KDC 적용 도서관

전술한 바와 같이, KDC는 조사대상 어린이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로서, 공립어린이도서관과 인표어린이도서관의 적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KDC를 채택한 이유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분류표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37관(40.2%)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목록 이용 등 타 도서관과의 협력을 고려해서가 21개관(22.8%), 학교 및 공공도서관 이용상의 편의를 고려해서가 12개관(13.0%)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전반적으로 어린이도서관에서 KDC를 사용하는 까닭은 KDC가 갖는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으로 인해 목록 작성시에 다른 도서관의 목록을 참고할 수 있는 업무상의 측면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적다는 이용자적 측면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기타로 조사된 3관은 모두 인표어린이도서관에서 응답되었는데, 본부를 중심으로 한 일괄분류시스템 체제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표 9〉 KDC 적용 도서관의 KDC 채택이유

분류표 채택이유	응답자수(명)	비율(%)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분류표	37	40.2
전임자가 선택	5	5.4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에 적합	4	4.3
자관의 도서관 규모와 장서수준에 적합	9	9.8
공동목록 이용 등 타 도서관과의 협력을 고려	21	22.8
학교 및 공공도서관 이용상의 편의를 고려	12	13.0
기타	4	4.3
합 계	92(복수응답)	100

KDC 적용상의 불편과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 33명(62.3%)의 응답자가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불편사항(표 10 참조)은 KDC가 만화와 그림책과 같은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형태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46.0%)과 특정 주제분야에 장서가 편중된다는 점(35.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장서 성격에 맞는 주제 항목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KDC 상의 불편함보다도 분류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기타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10〉 KDC 적용 도서관의 불편사항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응답자수(명)	비율(%)
장서량이 많지 않음	0	0.0
장서 성격에 맞는 주제 항목이 부족	5	13.5
특정 주제분야에 장서가 편중	13	35.1
어린이도서의 여러 형태(만화, 그림책)를 수용하지 못함	17	46.0
기타	2	5.4
합계	37(복수응답)	100.0

한편 KDC를 적용하였을 때 유용하거나 편리한 점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의견을 서술 형태로 조사하였는데, 앞서 KDC를 채택하게 된 이유들과 거의 비슷하였다. 추가로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사이의 순환발령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일반적 분류표인 KDC를 사용하면 특별한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분류표 수정과 관련하여 현재 KDC를 수정 전개하여 사용하는 분야와 앞으로 수정 전개할 계획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현재 KDC를 수정 전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13개관으로, KDC 적용 도서관의 24.5%에 해당된다. 수정전개하고 있는 주제분야는 〈표 11〉과 같은데, 문학이 10개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과학이 3개관, 철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언어, 역사가 각각 2개관, 총류가 1개관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KDC 수정 도서관의 수정전개 주제분야

주제분야	도서관수	주제분야	도서관수
총류	1	기술과학	2
철학	2	예술	0
종교	0	언어	2
사회과학	3	문학	10
순수과학	2	역사	2

수정전개 이유와 그 방법을 살펴보면, 자관의 성격상 어린이도서에 문학을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아동문학과 추리소설을 분리하여 추리소설전집을 수정 전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그림책을 분류하기가 어려워 스티커를 이용하거나 창작동화내에서 세분화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전개 한다는 의견도 기술하였다.

또한 수정전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 5곳도 모두 문학 분야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것은 문학에만 장서가 편중되어 책을 찾는 일이 너무 어렵고 그림책과 동화책, 옛이야기 등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분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 등으로 어린이도서관에서 KDC를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들 중에서 문학이 가장 심각한 분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KDC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조사대상 도서관은 앞으로 분류표를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것은 KDC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분류표로서 KDC가 주는 다양한 혜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KDC의 문제점과 한계를 응답자가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운영에서 분류표 적용 및 변경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자관분류표 개발 도서관

자관분류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도서관은 전체 88개관중 22개관(25.0%)으로, 분류표 채택이유는 자관의 도서관 규모와 장서수준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13관(50.0%)으로 가장 많았다(표 12 참조). 이외에도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에 적합하기 때문이 5관(19.2%), 전임자 선택과 기타 의견이 각각 4관(15.4%)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류표 채택이유는 자관분류표 개발 도서관만이 응답하는 질문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관분류표를 개발한 직접적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자관의 장서량과 장서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표를 개발하기 위해서가 11개관(44.0%),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장서에 적합한 분류표가 없어서가 9개관(36.0%), 기타가 5관(20.0%)으로 나타나, 어린이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분류체계를 찾지 못해 자관의 장서 특성을 반영한 분류표를 개발하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기타 의견을 보면, 분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3-4개의 분류항목에 따라 대략의 서가배열만 하는 몇몇 도서관도 있어 분류표를 사용하지 않은 도서관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표 12〉 자관분류표 개발 도서관의 분류표 채택이유

분류표 채택이유	응답자수(명)	비율(%)
전임자가 선택해서	4	15.4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에 가장 적합	5	19.2
자관의 도서관 규모와 장서수준에 가장 적합	13	50.0
기타	4	15.4
합 계	26(복수응답)	100.0

자관분류표 개발시 참조한 분류표에 대한 질문에는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도서관이 12개관(50.0%)으로 가장 많았고, KDC와 어린이도서관 분류표가 각각 6개관으로 나타났다. 참조한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는 느티나무 도서관 분류표가 4개관, 파랑새 도서관 분류표가 2개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서귀포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위의 두 개의 분류표와 KDC에 모두 응답하고 있어, 개발 당시 적용되고 있었던 모든 분류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분류표가 개발되었음을 짐작

하게 한다.

자관분류표의 형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서는 십진식과 비십진식이 각각 11개관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참도깨비어린이도서관과 책고리어린이도서관과 같이 비십진식이지만 주류 항목을 10개로 구성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었다. 자관분류표의 주류 항목에 응답한 도서관들의 구체적인 분류 항목은 <표 13>과 같으며, 주류 항목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자관분류표 개발 도서관들의 대분류 항목 체제

어린이도서관	대분류 항목 체제	구 분
느티나무	000백과, 100인문, 200역사, 300우리가 사는 세상, 400자연의 세계, 500생활과 과학, 600예술, 700그림책/만화, 800문학, 900도서관/부모	10
마포숲속	000사전, 100어른, 200역사, 300예술, 400과학, 500초등권장도서, 600공룡, 700생물, 800동화, 900그림책	10
맨발동무	100도감/참고자료, 100어른책, 200인문/역사, 300사회/문화, 400순수과학, 500기술과학, 600예술, 700그림책, 800문학, 900비도서자료	10
밝은문고	000사전/간행물, 100국내발행, 200외국책, 300어린이그림책, 400과학/수학/환경, 500만화/역사, 600예술, 700교육, 800, 900교양	10
웃는책	000총류, 100철학, 200사상, 300사회과학, 400순수과학, 500기술과학, 600예술, 700옛이야기, 800문학작품, 900역사	10
파랑새	000총류, 100국내문학, 200외국문학, 300사회과학, 400자연과학, 500인물, 역사, 600예술, 700학습교재(워크북), 800만화, 900성인	10
푸른꿈	000참고도서, 100청소년 및 성인도서, 200인문(철학,종교,언어), 300사회과학, 400자연의 세계, 500생활과 과학, 600예술/취미, 700그림책, 800문학, 900역사/인물	10
한길	000도서관자료, 100철학종교, 200역사인물, 300경제정치, 400자연과학, 500환경컴퓨터, 600예술체육, 700그림만화, 800시수필, 900성인	10
대조동꿈나무	000정기간행물, 100철학/종교, 200사회/경제/교육, 300옛이야기/민속, 400과학, 500가정/성, 600예술/문화/답사, 700그림책, 800창작, 900역사/인물/지리	10
울산북구 기적	000총류, 100인문, 200역사/문화, 300사회과학, 400자연의 세계, 500생활과 과학, 600예술, 700그림책/만화, 800문학/아기, 900어른	10
서귀포 기적	000참고, 100인문, 200역사, 300사회, 400자연, 500생활과학, 600예술, 700그림책, 800문학, 900성인	10
다전	총류, 문학, 과학, 종교, 역사, 학습류	6
반딧불이	우리창작, 외국창작, 옛이야기, 시 기타글모음, 역사, 인물, 문화, 예술, 과학, 청소년 및 어른도서, 종교	11
반송느티나무	유이용도서, 초등저도서, 초등고도서, 청소년도서	4
이삭	유아, 유치, 한국창작, 외국창작, 과학, 역사, 한국전래, 외국전래	8
인천늘푸른	그림책, 외국동화, 국내동화, 외국소설, 국내소설, 역사, 옛이야기, 시, 수필, 전기, 사진, 과학	12
참도깨비	옛이야기, 역사/인물, 창작동화(우리나라/다른 나라), 과학/환경, 글모음, 청소년/학부모용, 그림책, 비디오 시청각, 만화, 성인문학	10
책고리	그림책, 옛날이야기, 동화, 소설, 역사 및 전기, 동요/동시/전래동요, 과학책, 논픽션(일기/수필/기록문 등), 신문/잡지, 코믹	10

첫째, 주류 항목은 최소 4개에서 최대 12개에 이른다. 특히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경우는 단순한 연령구분에 지나지 않아 자관분류표라 구분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둘째, 십진식 체제를 갖추고 있는 자관분류표의 주류 항목에는 KDC의 주류 구성과 유사한 항목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00 총류와 400 자연과학은 십진식을 채용한 11개관 모두에서 같거나 유사한 항목명을 설정하고 있었다. 또한 300 사회과학은 7개관, 500 생활과학은 6개관, 600 예술은 10개관, 800 문학은 6개관이 관련 주제를 배정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해당 주류의 하위주제명을 주류 항목으로 배정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이것은 느티나무 도서관 분류표나 파랑새 도서관 분류표와 같은 어린이도서관 분류표가 KDC의 체제를 토대로 변형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들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를 참조하거나 KDC를 참조해서 개발된 자관분류표의 경우 KDC의 주류 체제와 유사하게 구성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어린이도서관의 대표적인 형태중의 하나인 그림책과 만화를 별도의 주류 항목으로 구성하는 도서관이 많았다. 특히 십진식 형태의 7개관의 자관분류표에서는 700에 '그림책'이나 '그림책/만화'를 설정하고 있었다. KDC에서 700은 언어에 해당되지만, 언어와 관련하여 주류로 묶을 만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주류 항목을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비십진식 자관분류표를 개발한 3개관에서 그림책 항목을 설정하고 있었다.

넷째, 청소년 및 성인자료를 위해 '도서관/부모', '어른', '성인' '어른책' 등의 항목명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도서관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관련 항목이 설정된 분류기호는 주로 100과 900으로 각각 3개관, 5개관에 이른다. 또한 '청소년/학부모용'과 '성인문학'을 별도로 구분한 도서관도 있어 어린이도서관에서 성인도서관의 비중과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다섯째, 문학의 경우 단독항목 이외에도 국내문학과 외국문학 2개로 구분하거나, 한국창작/외국창작/한국전래/외국전래(또는 외국동화/국내동화/외국소설/국내소설) 등으로 세분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게다가 인천의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은 전체 12개의 주류에서 문학 관련 항목을 7개나 배정하고 있어 어린이도서관에서 문학 관련 자료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도서관들의 자관분류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주류 항목을 살펴보면, 총류(또는 참고도서, 사전), 국내문학, 외국문학, 옛이야기, 철학/종교, 사회과학, 자연의 세계, 생활과학, 예술, 그림책(만화), 인물/역사, 학부모 도서 등이 해당된다.

자관분류표 적용상의 불편과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명(36.4%)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앞서 동일 질문에 대한 KDC 적용 도서관의 응답률 62.3%(33개관)보다는 낮은 수치로, 자관의 장서량과 장서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류표를 개발한 이유와 관련이 있다 하겠다. 구체적인 불편사항으로는 장서량에 맞지 않음과 다른 기관의 분류번호 참조 어려움이 각각 2개관, 분류항목 부족과 장서편중 현상이 각각 1개관으로 나타났으며, 서기배열이 자주 흐트러지거나, 공신력의 부족으로 자관분류표에 대한 설명이 자주 필요하다는 등의 기타 의견도 있었다(표 14 참조).

〈표 14〉 자관분류표 적용상의 불편사항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응답자수(명)	비율(%)
장서량에 맞지 않음	2	25.0
장서 성격에 맞는 주제 항목이 부족	1	12.5
다른 기관의 분류번호를 참조하기가 어려움	2	25.0
특정주제분야에 장서가 편중	1	12.5
기타	2	25.0
합 계	8	100.0

다음으로 자관분류표를 적용하였을 때 편리한 점에 대해 응답한 12개관의 전반적인 의견은 어린이도서관에 맞게 책을 분류하기 쉽고 서가배열도 수월하며 누구나 쉽게 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었다. 또한 브라우저를 통해 아이들이 수준에 맞는 책이나 관심 있는 책을 직접 고르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자관분류표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분류표 변경과 관련하여 자관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는 22개관의 도서관 중에서 10개관 (45.5%)이 변경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수치는 앞서 분류표 적용상의 어려움과 불편에 대한 응답률이 KDC 적용 도서관의 그것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인 점과 자관분류표 적용상의 편리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는 상충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즉, 아이들이 학교 및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KDC로의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과 같이 전산시스템의 변경으로 분류표 변경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장서량의 증가로 분류표 재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경을 계획하는 등 자관분류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표준적이고 어린이도서관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도서관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여러 도서관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고심중임을 밝히고 있어, 어린이도서관에서 표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류표가 조속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적용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를 적용하는 도서관은 13개관으로 전체 응답자의 14.75%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적용상황을 살펴보면, 파랑새 도서관 분류표 9개관(69.2%), 느티나무 도서관 분류표 3개관 (23.1%), 푸른꿈 도서관 분류표 1개관(7.7%)으로 조사되었다.

분류표를 채택한 이유로는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2관 (75.0%)으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자관의 도서관 규모 및 장서수준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3관(18.8%), 그리고 KDC를 사용하기가 불편하여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를 선택하였다는 기타 의견도 1관(6.2%) 있었다.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의 적용상의 불편과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 6명(46.2%)의 응답자가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불편사항으로는 만화와 그림책과 같은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형태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4개관에서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앞서 KDC 적용 도서관에서도 가장 많은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항목이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같은 공간에 어린이도서관과 학부모형 도서를 함께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형 도서 분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분류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분류의 일관성 문제는 책을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분류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분류요구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를 주로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사립어린이도서관인 점을 고려한다면 자관의 분류도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사서가 아닌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분류가 이루어지는 사립어린이도서관의 열악한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를 적용하는 도서관에서는 공동목록을 활용한다거나 「한국십진분류법해설」과 같은 분류지침서를 참고하는 등의 KDC 적용상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를 적용하였을 때 유용하거나 편리한 점에 대해서는 10개관에서 응답해주었는데, 적용하고 있는 분류표가 어린이책을 분류하는데 적합하고 어린이들이 보고 싶은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며, KDC에 비해 세밀한 부분까지 분류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등 대체로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분류표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도서관은 2개관으로 확인되었고, 분류표 변경계획을 갖고 있는 도서관은 5개관(38.5%)으로, KDC 적용 도서관보다는 높고 자관분류표 개발 도서관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파랑새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는 2곳의 기적의 도서관이 모두 변경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의 사립어린이도서관보다 장서량과 규모면에서 더 큰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변경계획은 전술한 자관분류표 개발 도서관의 내용과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3. 어린이도서관 분류 및 분류표에 대한 의견

어린이도서관 사서로서, 어린이도서관의 분류나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전체 조사기관의 55.2%에 해당되는 53개관이 여기에 응답하였고, 어린이도서관에서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류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23개관 - 43.3%)이 많았다. 즉, 어린이도서관의 특성과 어린이도서관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한 통일된 분류표가 개발된다면 도서관 담당자들이나 이용자들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주로 KDC를 적용하는 공립어린이도서관의 담당자들은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이용상의 편의와 목록의 표준화된 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류표를 개발하기 보다는 KDC를 기본

으로 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KDC 어린이도서관용 항목들이 연구되고 공유되어야 하며,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분류표 수정과 관련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으로 인해 분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문학분야에 너무 많은 도서가 몰리거나 그림책이 많아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동화형식을 빌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책들의 분류도 고민된다는 의견들이었다.

어린이도서관의 분류 및 분류표에 대한 의견 이외에도 도서관의 운영이나 전산화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거나 자관분류표의 개발 배경을 설명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인표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일괄분류시스템과 서가배열상의 재량에 관한 설명이 많았다. 또한 이용자의 특성이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연령별 접근과 유형별 접근을 고려하여 분류의 문제를 배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사되었다.

4.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적용상의 불편과 어려움에 대한 추가 논의

지금까지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적용 현황 및 분류표의 채택 이유, 적용상의 문제점과 어려움, 분류표 변경 계획 등을 분석하였던 바, 본 절에서는 앞서 분류표 적용상의 불편과 어려움 및 자유 의견 기술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만화와 그림책과 같은 어린이도서관의 여러 형태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KDC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적용 도서관에서도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사항으로, 특정 분류표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어린이도서관 분류상의 난점이라 할 수 있다. KDC에는 그림책과 만화를 분류할만한 대분류 항목이나 기타 하위항목이 없는 실정이다. 예술의 하위분야인 657.1에 만화 항목을 두고 있지만, 여기에는 만화의 방법 및 재료와 관련된 이론서들을 분류하게 되어 있어 다양한 주제의 만화 자료를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분류체계에 만화나 그림책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에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어린이 만화와 그림책이 일반도서와 형태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용상으로는 전 주제를 포괄하고 있어, 분류항목만으로는 그림책과 만화라는 형식과 그것들이 다루는 내용에 대한 기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이 만화와 그림책의 분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개발시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특정 주제에 장서가 편중되는 점은 앞서 살펴본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주제별 장서량 분포나 KDC 적용도서관에서 수정전개하고 있는 주제분야와도 밀접히 관련된 사항으로, 어린이도서관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에서 연유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DC 적용 도서관에서는

추리소설을 아동문학에서 분리하거나, 창작동화를 세분하는 등의 나름의 수정전개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에서는 ‘문학과 그림책으로 분리’¹²⁾ 하거나 ‘국내문학과 외국문학’¹³⁾으로 분리 배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관에서 개발된 여러 자관분류표의 항목에서도 여러 개의 대분류 항목으로 문학을 세분하고 있었다.

셋째, 장서 성격에 맞는 주제 항목의 부족은 위의 두 가지 불편사항보다는 응답률이 적은 사항으로, 주로 KDC 적용도서관에서 제기된 만큼 KDC에서의 주제항목 부분, 특히 문학 분야에서의 항목 부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KDC 본표의 문학류 부분에서 아동문학과 관련된 분류항목으로는 한국문학(810) 아래에 동요·동시(811.8), 아동극(812.8), 동화(813.8)가 전개되고 있으며, 일본문학(830) 아래에 동화(833.8)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어린이 글 모음이나 아동 산문 등을 포함한 기타 장르의 자료들도 그 양이 적기는 하지만 꾸준히 출판되는 상황이어서 성인 문학과 동일한 장르상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문학 장르의 부족은 외국 문학을 분류할 때 더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 앞서 KDC에서 전개하고 있는 외국문학 항목은 일본동화(833.8)로만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어린이도서 출판경향을 살펴보면, 영어권 이외에도 프랑스와 독일어권 등 유럽권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 이들 자료에 대한 분류항목은 물론 분류방법에 대한 아무런 지시도 없어 전체 아동문학 자료의 분류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기도 한다.

IV. 결 론

이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에서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류체계가 없어 도서관의 실무자와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어린이도서관의 법적 개념과 시설기준을 근거로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유형을 규정해 본 바, 국내 어린이도서관은 공립어린이도서관/공립어린이문고, 사립어린이도서관/사립문고, 기적의 도서관, 인포어린이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설립·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도서관의 유형별·지역별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총 201개관으로 파악되었다.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장서량 분석에서는 공립과 사립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제별로는 문학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느티나무 도서관 분류표에서는 그림책/만화(700)와 문학(800)을 설정하여, 문학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림 동화책을 어린이문학과 별도로 배정하고 있음.

13) 파랑새 도서관 분류표에서는 국내문학과 외국문학을 대분류 항목 100과 200에 각각 배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적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96개관 도서관 중에서 88개관(91.7%)이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다시 세분해보면, KDC 적용 도서관이 53개관(60.2%), 자관분류표 개발 도서관이 22개관(25.0%),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적용 도서관이 13개관(14.8%)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립과 인표 도서관의 KDC 적용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에, 기적의 도서관과 사립어린이도서관은 KDC 이외에도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를 적용하거나 자관분류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분류표 채택이유로는 KDC 적용 도서관의 KDC가 갖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으로 인해 목록작성시에 다른 도서관의 목록을 참고할 수 있는 업무상의 측면과 학교 및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였다는 점을 많이 꼽았다. 자관분류표 개발 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적용 도서관들은 자관의 도서관 규모와 장서수준에 적합하기 때문과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각각 높게 나와 KDC의 보편성보다는 어린이도서관이나 자관의 규모 및 장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표를 선택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셋째, KDC를 수정 전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문학의 수정 전개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도 사회과학, 철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언어, 역사 등을 수정 전개한다는 응답도 2-3개관이 조사되었다. 한편 KDC 적용 도서관에서는 분류표를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관 분류표 개발 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적용 도서관들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평가에도 불구하고 분류표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도서관에서 표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류표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 어린이도서의 분류나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는 항목에서는 어린이도서관에서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류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분류표 적용상의 불편과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만화와 그림책과 같은 어린이도서의 여러 형태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 특정 주제에 장서가 편중되는 점, 장서 성격에 맞는 주제 항목이 부족한 점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본문상의 추가적인 논의는 향후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 개발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어린이도서관에서 표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류표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되며, 이 연구가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분류표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